

42 | 자동차고무부품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 | | | | | | | |
|----|---|----|-----|----|-------------|-------|----|
| 성별 | 남 | 나이 | 59세 | 직종 | 자동차고무부품 제조업 | 업무관련성 | 낮음 |
|----|---|----|-----|----|-------------|-------|----|

1 | 개 요

근로자 N은 A사에서 공무업무 및 현장관리를 하던 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A사는 부싱류, 마운트류, 댐퍼폴리 등의 자동차 부품용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N은 공장장으로서 공무(기계수리 및 유지관리)업무와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8:00이었다. 불량품소각(불량품내부의 철심을 재활용하기 위해 접착된 고무를 태움)은 통상 이틀에 한번 꼴로 2~3시간 작업하였다. 2005년 이후 일정 기간에는 도장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미숙련 외국인근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도장작업부서 주위에 많이 있었다고 한다. 기계수리작업 시 기계내부에 들어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 때 심한 냄새로 고통을 받았다고 본인은 진술하고 있으며, 성형기계 세척작업 시 세척제에 노출되었다한다. 2007년 8월 11일 가황 성형기계 수리 중 1m 높이에 서 떨어져 두부좌상과 갈비뼈골절의 사고를 당하였는데 N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터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한다. 전기배전판 수리업무도 종종 있었는데 배전판을 만지다 작은 감전 등의 전기충격을 자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경 사출기 전기배전함을 수리하다가 심하게 감전된 일

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결과를 2006년 상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3년치의 자료를 살펴보면 산, 유기용제 등이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

3 | 의학적 소견

과거병력은 특별한 건강이상 없이 있었다고 하며 가족 중에도 신경계 질환 병력은 없다고 하였다. 술은 1주일에 2~3회,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시며, 흡연은 하루에 반갑 정도를 피웠다. 병원 초진기록을 보면 2007년 6월경부터 하지(주로 좌측)의 점진적인 근약화와 간헐적인 쥐남(spasm)이 있었다고 하며 2007년 12월 17일 신경과 내원하여 근전도 등의 정밀검사와 임상관찰 후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으로 진단되었다. N은 공장장이라 관리자로 분류되어 특수건강진단은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기록상(2006년, 2007년)에는 특이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4 | 결 론

근로자 N은

- ① 8년 8개월간 A사에서 현장관리 및 공무(기계수리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였고
- ②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작업공정에 대한 검토 결과, 유기용제와 일부 화학물에 대한 노출은 간헐적이거나 저농도의 노출로 파악되며, 비교적 강력한 관련성이 있는 납의 노출은 없었고
- ③ 2007년 8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상이나 10월의 감전은 의무기록을 참조하면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증상발현(2007년 6월부터 하지의 점진적 근위약) 이후의 사건이므로

이 근로자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